

양곡관리법·난방비 폭탄... 2월 국회 시작부터 파행 우려

이번주 개최...여야, 요금 인상 요인 두고 '네 탓 공방' 갈등 첨예 이란 발언·이상민 해임안·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등 현안 산적

전남 농가의 현안 법안인 양곡관리법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가 2월 시작되지만 여야의 첨예한 갈등 속에 2월 임시회마저 파행을 거듭할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여당과 야당은 2월 6~8일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임시국회를 열 계획이다. 핵심 쟁점으로는 최대 민생 이슈로 떠오른 난방비 폭등 문제와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 발언이 꼽힌다. 특히 여권은 지난 몇 년간 난방비 인상 요인이 있었는데도 이를 억제했다는 주장과 함께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제 LNG(액화천연가스) 가격 상승,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의 변수에도 현 상황을 예측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맞서고 있다. 또 야당은 윤 대통령 발언이 경제·국민 안전에까지 위협이 된다고 지적하는 반면, 여당은 'UAE의 적을 주지시킨 것' 이상의 해석에 선을 긋고 있다. 2월 임시회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둘러싼 대립도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 28일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또 한번 검찰에 출석한 데 격앙된 분위기다. 이는 자연스럽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받는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는 공세로 이어져 특별검사(특검) 임명 법안 발의로 이어질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야당은 아울러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처리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여권은 야당의 이 같은 계획이 사법 리스크로부터 이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방탄용이라고 보고 집중적으로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소집한 1월 임시

국회 역시 결국 '이재명 방탄' 목적이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키운 바 있다. 다만 169석의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이 이 장관 탄핵소추안 등을 밀어붙이면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 한계다. 현안 법안 처리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다.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에 관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주요 법률도 쟁점인 가운데 양곡관리법 처리 여부도 관심사다. 양곡관리법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쌀 매입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에서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직회부) 건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직회부 요구가 있고 난 뒤 30일 이내에 여야 합의가 없으면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묻는 무기명 투표가 이뤄진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지난 16일 법안에 위한 소지가 있다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지만, 민주당은 이와 관계없이 본회의의 투표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점한 만큼 법안이 부의될 확률이 높지만, 여야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결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같은 날 상정될 가능성은 작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힘 당권주자는 '바쁘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왼쪽) 의원이 29일 서울시 마포구 홍대 앞 안 카페에서 열린 '김기현과 함께 새로운 미래' 타운홀 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이 29일 경기도 양주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수도권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토크 콘서트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검찰 조사 '이재명 때리기'

국민의힘은 29일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관련해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맹비난했다. 박정화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이 대표를 향해 "이런 당당한 피의자를 본 적이 없다"며 "사법 정의를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으며 법치와 정치의 개념과 시스템 전체를 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뻔뻔한 정치인도 본 적 없다"며 "검사 질문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장외 여론전에만 열중한다. 이러려고 의원직과 대표직을 구질구질하게 붙들고 있었나 보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벌써 수개월째 야당 대표의 범죄 혐의 관련 뉴스가 세상을 뒤덮고 있다. 억울한 점이 있다면 당대표직과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의연하게 이에 대응하면 될 일"이라고 직격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조사받으며 이 대표가 한 것이라고는 미리 준비한 진술서를 내민 것밖에 없다"며 "당당히 맞서겠다고 큰소리치면서 정작 검사 앞에서는 한마디 말도 못하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모습 속에서 국민은 '대장동 뭉통'을 이내 알아차리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이 대표가 검찰 조사를 마친 뒤 '검찰이

기소를 목표로 조작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한 데 대해 "세상이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모두 '망신주기 정치쇼'이고 '정치보복'이고 '독재'인가"라며 "정말 가지가지 한다. 차라리 더 이상 출석하고 싶지 않다고 솔직히 고백하라"고 쏘아붙였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 글에서 이 대표를 향해 "죄가 있으면 대통령도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선창하시던 분이 자신에 대한 검찰의 수사망이 죄어오자 궤변을 쏟아냈다"며 "검찰청에 들어가는 수사 검사 앞에 작성해 온 진술서를 특 단진 후 유구무언, 묵비권 행사라 한다. 국민이 아전인수식 궤변을 언제까지 들어줘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법치다. 대한민국 법치를 더 이상 욕보이지 말라"며 "이 대표가 자신의 무혐의를 석명해야 할 곳은 검찰청과 법원이다. 검찰을 부정하고 법원 판결을 무시하면서 법치를 말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상범 의원은 전날 밤 페이스북 글에서 이 대표가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 대해 "검찰 수사에 대한 예단과 편견, 자기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고 비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윤 대통령, MB와 UAE 방문 성과 공유

전화로 환담...MB 역할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전화 통화 해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 성과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300억 달러 투자 약속'을 이끌어 낸 성과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하며, UAE 측과 친분이 두터운 이 전 대통령의 지속적인 관심과 역할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9일 "윤 대통령이 지난주 이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순방과 관련한 환담을 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해 12월 대

통령 특사로 UAE를 방문해 윤 대통령뿐 아니라 이 전 대통령의 친서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은 윤 대통령을 만나 이 전 대통령이 건강한지 물으며 안부를 전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 부부를 한남동 관저로 초대해 식사를 함께하며 '제2의 중동 봄'에 관해 의견을 나눌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UAE 측과 소통 창구가 계속 열려 있다"면서도 "아직 외출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번 주에도 순방 성과를 이어나가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이 전 대통령과의

소통도 그런 차원에서 이뤄진 측면이 커 보인다. 연초 노동·교육·연금개혁 등 3대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던 것과 별도로 글로벌 복합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수출 증진과 투자 유치에 주력할 분위기다. 조만간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순방 성과를 점검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UAE 국부펀드의 300억 달러가 원전, 방산, 에너지 등 국내 어느 분야에 투자될지 개략적인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중동 자본이 한국 기업 지분을 사들이는 데 있어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는 없는지 등 검토도 이뤄질 전망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대통령실 "이재명 대표 관련 입장 없다"

대통령실은 29일 위례-대장동 의혹과 관련, 전날 검찰 조사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독재정권'이라고 작성 비판한 데 대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는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와 관련된 검찰 수사는 대통령실과 무관하다는 의미를 부각하려는 언급으로 해석된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통화한 사실이 맞다"며 "건강 관중인지 안부 겸 전화하신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중동 경제외교와 관련된 'MB 역할론'에 대해서는 "먼저 건강이 회복되는 게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추가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에 대해서는 "고발을 포함해 법적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최종 결정은 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내일(30일) 고발하느냐'라는 질문에는 "이번 주 초반이 될 것으로 예측한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상가매매 (상무지구.유형적합) (임대가능)

- ▶ 중심 상업지구
- ▶ 유형가능 (전용 100평)
- ▶ 시세 - 10억
- ▶ 급매 - 7억 (용4억)

(보4천, 월수익 400만)

010-6670-9800

경매교육 [특수 전문반]

[기초반, 중급반]

* 특수 전문반 모집 (10명)

- 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
- 2) 중급반 (실전부터 ~)
- 3)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
- 4) 투자반 (투자가능한분)

▶ 경매 물건 추천 ◀

북구 두암동 (상가주택) ▶	감정가 3억9천 → 최저가 2억7천
광산구 하남동 (근린상가) ▶	감정가 62억 → 최저가 35억
동구 금남로 (주택) ▶	감정가 2억5천만 → 최저가 1억1천
광산구 박호동 (주택) ▶	감정가 4억4천 → 최저가 3억
광산구 하남동 (공장) ▶	감정가 36억 → 최저가 16억
장성 동학면 (과수원) ▶	감정가 8억2천 → 최저가 4억6천
서구 풍암동 (근린주택) ▶	감정가 6억5천 → 최저가 4억5천
북구 오치동 (주택) ▶	감정가 2억1천 → 최저가 2억1천

010-2614-9801